

탄핵이다

윤석열 탄핵안 국회 가결 ... 노동중심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시작



국회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10시28분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온 국민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은지 11일 만이다. 오후 7시24분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집행도 정지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금속노동자들과 시민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가결을

선포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함께 서로를 부둥켜안았다. 사람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서로에게 고생했다며 축하의 인사를 나눴다. 이어 광장에서 탄핵 집회 상징과 같았던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함께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울려 퍼졌다.

윤석열 정권은 2022년 5월 10일 출범 이후 줄곧 민생은 외면

하고 노조파괴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들의 외침을 묵살해왔다. 심지어 12.3. 계엄령으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여 처단하려고 시도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퇴진이 곧 민주주의'라 외치며 완강한 투쟁을 벌였다. 금속노동자의 총파업으로 각계각층 전 민중의 공분을 모아 윤석

열 퇴진 촛불항쟁의 도화선이 되
고자 결의했었다.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은 총파업에 돌입하고 지
침에 따라 지역별 윤석열 퇴진
집회에 결합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철
제감옥에 들어가 파업했던 조선
소 하청노동자들, 금속노조 거제
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
을 향해 윤석열은 헬기를 띄우고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겁박으
로 일관했다. 우리에게는 일상이
계엄이었다는 거통고지회 조합원
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윤석
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상경했다.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
지 전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
동자의 51일 파업과 관련해 470
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과 형사소
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집회 현장에
서 시민들에게 직접 구호를 작성
할 수 있는 피켓과 윤석열 퇴진
물티슈, 금속노조 스티커 굿즈 등
배부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시
민들은 금속노조가 배포한 피켓
에 기발하고도 재치 있는 문구를
적어 광장에 힘을 보탤다.

금속노조는 탄핵 가결 소식에
즉시 성명을 내고 “이제 헌법의
시간이다.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윤석열은 아직 처단
되지 않았다”며 “금속노조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내란 세력의



청산을 요구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늦
추지 말라. 빠르게 심리하고 탄핵
을 결정하라”라며 “윤석열에
중범죄의 무서운 처벌을 내리고
군홧발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
시 회복하라”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
해서도 윤석열과 내란을 함께 음
모한 동조자 한덕수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금속

노조는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
과 차별이 사라지고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촛불을 계속 이어
간다고 발표했다. 21일 오후 3시
전국 광역지역 동시다발로 촛불
시위를 개최하고, 서울 광화문 앞
에서는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연다.
집회 후에는 헌법재판소 방향으
로 행진한다.